

#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인용문헌 분석

김 용 성\*

## <목 차>

- |                |                |
|----------------|----------------|
| 1. 연구의 목적      | 6.2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
| 2. 연구의 방법      | 6.2.1 경제학 문헌   |
| 3. 연구의 제한점     | 6.2.2 사회학 문헌   |
| 4. 용어의 정의      | 6.2.3 정치학 문헌   |
| 5. 국내외 연구의 동향  | 6.3 국가별 분포     |
| 6. 인용문헌분석 및 결과 | 6.3.1 경제학 문헌   |
| 6.1 주제분포       | 6.3.2 사회학 문헌   |
| 6.1.1 경제학 문헌   | 6.3.3 정치학 문헌   |
| 6.1.2 사회학 문헌   | 6.4 문헌인용 습관    |
| 6.1.3 정치학 문헌   | 7. 결론          |

## 1. 연구의 목적

발달사의 측면에서 흔히 인류사회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로 구분한다.<sup>1)</sup> 과거의 정보원은 축망받던 소수의 마을 사람에게 불과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회에서는 한정된 정보에 의한 한정된 행동범위가 있을 뿐이었다. 현대사회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정보는 힘이 다 라는 말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인간의 자각과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정보전달매체의 변화가 일어나

\* 명지대학교 도서관학과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 William Morrow, 1980).

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회와 문화의 발달을 가져왔다. 정보는 국가의 자산이며 그것의 효율적 유통은 사회와 문화의 발달을 촉진한다.<sup>2)</sup>

지식의 획득이나 사실구명 및 진리탐구를 위한 욕구충족적 동기는 학술 활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연구자들이 지닌 동기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연구성과를 여러가지 정보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표할때, 연구자들은 선배학자들의 문헌을 인용하는<sup>4)</sup> 습관이 있다. 이러한 저술습관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르느냐 하는 점이 새로이 생산되는 문헌의 우수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sup>5)</sup> 이 점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의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그들의 문헌인용습관을 구명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구명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학술코뮤니케이션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의 문헌인용습관을 구명한다는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을 조사하여 코우드화하고 비교분석법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타분야 문헌의 주제분포와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및 국가별 분포를 구명하였다.

2) 최성진, 전국도서관 자원 네트워크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1983년 교육정책과제연구), 7면. (미간본)

3) 김경동, 인간주의 사회학. (서울:민음사, 1978), 116면.

4) 대체로 1850년 이전에는 "footnot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scholi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프라이스(1963)의 주장이다. D. de Solla Price, *Little Science, Big Science*(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3), p. 65.

5) T.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rice, op. cit.; Linda C. Smith, Citation Analysis. *Library Trends* 30: 1 (1981), 83-106; N. Kaplan, The Norms of Citation Behavior. *American Documentation* 16: 3 (1965) 179-184.

### 3. 연구의 제한점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의 문헌인용습관을 구명하기 위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중에서 경제학,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를 조사대상의 학문분야로 선정하였다.<sup>6)</sup>

조사대상의 잡지는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학회지 즉 경제학 연구, 한국사회학, 한국정치학회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술잡지의 발행연도는 최근호가 출판된 1980—1985 년으로 제한하였다.

선정된 학문분야의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들의 주제분포와 정보전달 매체의 분포 및 국가별 분포를 중점적으로 구명하였다.

###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가. 타분야 문헌의 주제분포 : 조사대상인 학문분야의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의 주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총 인용문헌수와의 대비를 백분율로 제시한 것이다.

나.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 조사대상인 학문분야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은 어떤 유형의 매체로 생산된 것인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타분야 인용문헌수와의 대비를 백분율로 제시한 것이다.

다. 국가별 분포 : 조사대상인 학문분야의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은 어떤 국가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타분야 인용문헌수와의 대비를 백분율로 제시한 것이다.

6) 이 분야에 관하여 연구실적을 정리하고 주요연구 경향을 분석한 문헌은 홍승직, 김계수, 임종철, 한국사회과학연구.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7).

## 5. 국내외 연구의 동향

최근까지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동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sup>7)</sup>

가. 개별적인 학문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학문분야간 (interdisciplinary)정보의 흐름에 관한 거시적 연구는<sup>8)</sup> 전무한 상태이다.

나. 연구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수요상황을 진단하거나 학술잡지선정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 국가간의 정보유통 상황과 특정한 국가에 축적된 정보의 유통 상황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개별적인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라. 연구의 대상인 학문분야를 복수로 선정하여 동시성을 가지고<sup>9)</sup> 비교 분석적 측면에서 수행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마. 인용된 문헌중에서 타분야 문헌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선행연구 가운데서 이 연구의 목적에 비교적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그것을 연대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rown, C. H. *Scientific Serials*. (Chicago : ALA, 1956).

화학분야는 연구정보의 50 퍼센트 이상을 자체의 선행업적에 의존하고 타분야는 일반과학, 물리학, 약학, 생물학의 순위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Kaplan, Norman. The Norms of Citation Behavior. *American Documentation* 16 : 3 (1965), 179—184.

7)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는 최창윤, 신명순의 연구(1974)가 최초이며 도서관학계에서는 구자영의 연구(1975)를 필두로 하여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8) R. K. Merton, *The Sociology of Science :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 89.

9) M. K. Buckland, *Book Availability and the Library User*. (New York : Pergamon Press, 1975), p. 12.

인용문헌은 연구자에게 학문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문헌의 유통을 의미하므로 사회조직과 연구자들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Price, Derek J. de Solla. *Little Science, Big Scienc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각주는 학문과 함께 오랜 연륜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1850년 이전에는 scholia 라는 용어를 footnote 대신 사용했다. 각주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학문의 발달을 뜻하지는 않는다. 요구와 논쟁은 과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

Broadus, Robert N. The Literature of the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3 : 2 (1971), 236—243.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분야는 도서에 비하여 잡지의 이용율이 높고, 인문 사회과학분야는 도서의 이용율이 잡지를 압도한다.

Gannett, Elwood K. Primary Publication Systems and Services. *ARIST* 8 (1973), 243—275.

학술코뮤니케이션 시스템 내에서의 잡지의 역할은 그것이 공인된 기록이며 정보유통의 수단이며 필자의 명망을 시사하는 사회장치라는 점이다.

Choi, Chang-Yoon. Schools in Korean Political Science : viewed from patterns of communication, 1945—1973. *Social Science Journal* 2 (Unesco Korean Commission, 1974), 141—161.

한국의 정치학 연구자들은 역사학에 12.4 퍼센트, 법학에 6.1 퍼센트, 사회학에 4.5 퍼센트, 경제학에 1.8 퍼센트, 기타(철학, 문학)분야에 3.5 퍼센트의 타분야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구자영, 학국화학자의 연구정보원 : 인용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26(1975), 111—234.

국내 화학분야의 자체문헌 의존도는 84 퍼센트이다. 타주제 의존도의 순위는 물리학, 일반과학, 생물과학, 의학, 농학의 순위이다.

Maltha, D. J. *Technical Literature Search and the Written Report.*

(London : Pitman, 1976).

과학자는 “인포메이션 체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고리이다. 즉 과학자는 자신의 분야와 관심있는 타분야의 발전에 유의하는 한편 자신의 실험결과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Lancaster, F. W. ; Smith, Linda C. Science, Scholarship and the Communication of Knowledge. *Library Trends* 27 : 3(1978), 367—388.

문헌이용자이며 동시에 그 생산자들이 이루는 사회를 이용자 사회(user community)라고 명명하면서 학술코뮤니케이션 순환도(research communication cycle)를 제시하였다. 동화(assimilation)를 유도하는 행위자는 다름 아닌 연구자이다.

Meadows, Arthur J. (ed.). *The Scientific Journal*. (London : Aslib, 1979).

학술잡지는 학문조직의 핵심이 되며 연구자들의 공동인식을 유도하는 요인이며 학문구성에 관한 동의를 유도하는 요인이다.

Bergeijk, D. Van ; Risseeuw, M. The International Translation Centre : the language barrier in the dissemin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and the role of the ITC. *Jnl. of Information Science* 2 : 1 (1980), 37—42.

정보유통은 과학의 발달과 경제발전 및 사회개선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요소이다.

Smart, John C. ; Elton, Charles F.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itation Rates of Education Journal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nl.* 18 : 4 (1981), 399—413.

잡지문헌은 공식 학술코뮤니케이션의 기본형태이며 지식창조, 지식확산, 지식활용 등을 위한 원천이다. 잡지기사에 인용되는 문헌의 빈도는 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잡지의 질과 학술적 능력을 나타낸다.

Neeley, J. D., Jr. The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 Literature : an interdisciplinary cross-citation analysis. *JASIS* 32 : 3 (1981),

217—223.

경영학 연구자들은 경제학에 8 퍼센트, 심리학에 13 퍼센트, 사회학에 5 퍼센트의 타분야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학 연구자들은 경영학에 3 퍼센트, 정치학에 1 퍼센트의 타분야 의존도를 보인다. 사회학 연구자들은 경영학에 3 퍼센트, 경제학에 3 퍼센트, 심리학에 4 퍼센트, 정치학에 4 퍼센트의 타분야 의존도를 보인다. 정치학 연구자들은 경영학에 2 퍼센트, 경제학에 4 퍼센트, 심리학에 4 퍼센트, 사회학에 9 퍼센트의 타분야 의존도를 보인다.

정진식. 경제학 문헌의 인용분석연구 (1). 정보관리연구 16 : 4 (1983), 1—31.

경제학 연구자들은 경영학에 6.7 퍼센트, 사회학에 2.4 퍼센트, 심리학에 1.8 퍼센트, 정치학에 1.5 퍼센트, 교육학에 0.6 퍼센트, 역사학에 0.5 퍼센트 등의 타분야 의존도를 나타낸다.

Brittain, J. M. Internationality of the Social Sciences :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transfer. *JASIS* 35 : 1 (1984), 11—18.

사회과학의 경우, 각국의 미국문헌 의존도는, 영국이 45 퍼센트, 서구라파가 30 퍼센트, 동구라파가 32 퍼센트, 기타 지역이 67 퍼센트이다. 미국의 자급도 (self-sufficiency)는 86.2 퍼센트이며 구라파 국가들은 50 퍼센트 미만이다. 기타 지역은 사회과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구라파 국가의 사회과학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과학을 지배하는 언어는 영어이다. 영어권에 속한 사회과학자들은 타언어권에 속한 사회과학 문헌을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과학자들은 영어문헌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영어문헌이 어느 국가의 문헌보다 우수하고 가치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검색습관으로 인한 우연의 결과이다. 그것은 또 미국 사회과학 문헌의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 유통망과 시장망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 6. 인용문헌분석 및 결과

인용문헌분석은<sup>10)</sup> 계량적 연구방법중의 하나이며 학문연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의 문헌인용 습관을 구명하기 위하여 경제학, 사회학 및 정치학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의 주제분포와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및 국가별 분포를 진단하고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 점이 이 연구의 중심과제이다.

표 1은 조사대상 학문분야의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계량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경제학 분야의 조사대상 총 논문수는 66편, 사회학의 그것은 37편, 정치학의 그것은 131편이다. 이들이 인용한 문헌은 각각 1461편과 1338 편 및 4150 편이다.

경제학 분야의 자분야 인용문헌수는 1369 편이고 타분야 문헌수는 92 편으로서 총 인용문헌수의 93.70 퍼센트와 6.30 퍼센트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된 자분야 문헌의존도(self-cited ratio)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순위를 나타내며 타분야 문헌의존도(citation dependency on other disciplines)는 반대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의 순위를 보인다.

〈표 1〉 조사대상 분야의 계량적 개요

분야 \ 구분	조사대상 총논문수	인 용 문 헌 수		
		자분야(%)	타분야(%)	계(%)
경 제 학	66	1,369(93.70)	92(6.30)	1,461(100)
사 회 학	37	1,075(80.34)	263(19.66)	1,338(100)
정 치 학	131	3,554(85.64)	596(14.36)	4,150(100)

10) 최초의 인용연구는 C. C. Jewett (1816—1868)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R. N. Broadus, Early Approaches to Bibliometrics, *JASIS* 38: 2(1987), 127—129.

## 6.1 주제분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연구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것은 학문분야간 정보의 교환이<sup>11)</sup> 가치가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이 인용한 타분야 문헌의 주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문헌인용습관을 구명한다는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은 과연 어떤 타분야 문헌을 통하여 학술교류니케이션을 이룩하는가를 다루려는 것이다.

사회과학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고 그 의존도를 측정하여 표 2, 3, 4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인접한 학문분야의 문헌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문헌까지도 폭넓게 인용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 6.1.1 경제학 문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학 분야의 타분야 의존도는 6.30 퍼센트이다.<sup>12)</sup>

경제학 연구자들은 역사학 문헌을 가장 선호하면서 인접한 사회과학 문헌뿐만 아니라 수학, 철학 등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문헌까지도 인용하고 있다. 이 분야 연구자들의 타분야 의존도는 특히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통계학, 교육학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 분야에 인용된 모든 타분야 문헌의 78%를 상회하고 있다(표 2 참조).

### 6.1.2 사회학 문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학 분야의 타분야 의존도는 80.34 퍼센트

11) 홍승직, 김계수, 임종철, 전개서, iii면 ; 김용성,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작용하는 요인, 인문과학연구논총 3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93-104.

12) 박정윤의 연구(1974)에 의하면 경제학의 타분야 의존도는 21.7 퍼센트이고, 정전식의 연구(1983)에 의하면 그것이 15.1 퍼센트로 측정되었다.

이고 타분야 의존도는 19.66 퍼센트이다.

사회학 연구자들은 경제학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사회과학 문헌 뿐만 아니라 철학, 신학 등 인문과학 문헌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 문헌에의 의존도는 50 퍼센트를 상회할 만큼 여타 분야를 압도하고 있다. 사회학 연구자들의 타분야 의존도는 경제학과 정치학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74% 상회)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 6.1.3 정치학 문헌

표 1에 따르면 정치학 분야의 자분야 의존도는 85.64 퍼센트이고 타분야 의존도는 14.36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학 연구자들은 타분야의 문헌을 인용할 때 사회학 문헌을 가장 선호 하면서 경제학이나 사회학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접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문헌까지도 인용한다. 특히 사회학과 경제학 문헌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63% 상회) 경향을<sup>13)</sup>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표 2〉 경제학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의 주제분포

분	아	수	량	%
역	사	학	23	25.00
정	치	학	14	15.22
사	회	학	13	14.13
통	계	학	12	13.04
교	육	학	11	11.96
수		학	6	6.52
지	리	학	4	4.35
사	회	일	4	4.35
철		학	3	3.26
법		학	1	1.09
심	리	학	1	1.09
계		92		100.01

13) 최창윤, 신명순의 연구(1974)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치학 분야는 역사학 12.4%, 법학 6.1%, 사회학 4.5%, 경제학 1.8%, 기타분야 3.5% 등 총 28.3%의 타분야 의존도를 보인다.

〈표 3〉 사회학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의 주제분포

분	야	수	량	%
경	계 학	132		50.19
정	치 학	64		24.33
역	사 학	17		6.46
심	리 학	10		3.80
교	육 학	9		3.42
철	학 학	8		3.04
인	류 학	7		2.66
법	학 학	4		1.52
문	학 학	3		1.14
사	회 일 반	3		1.14
신	학 학	1		0.38
언	어 학	1		0.83
지	리 학	1		0.38
통	계 학	1		0.38
계		263		99.22

## 6.2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시간과 공간상의 장애를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정보가 막힘이 없이 흘러가려면 정보전달매체의 다양성<sup>14)</sup>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쇄매체의 경우 필사, 활자화, 마이크로화의 발전단계를 거쳤고, 음성매체의 경우, 소리의 전달에서 그것의 축적과 재생으로 발전하였으며, 인쇄와 음성매체를 통합한 자기매체는 경박단소화(輕薄短小化)를 지향하고 있다.<sup>15)</sup>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이 과연 어떤 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가를 인용된 타분야의

14) 최성진, 도서관봉사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고찰. 도서관학3 (1973), 83-102 ; T. Saracevic and L. J. Perk, Ascertaining Activities in a Subject Area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JASIS 24 : 2 (1973), 120-134.

15) Alvin Toffler, op. cit.

〈표 4〉 정치학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의 주제분포

분	야	수	량	%
사	회 학	208		34.90
경	학 제	169		28.36
역	사 학	61		10.23
철	학	53		8.89
신	학	36		6.04
교	육 학	22		3.69
심	리 학	16		2.68
법	학	14		2.35
사	회 일 반	11		1.85
통	계 학	2		0.34
문	학	1		0.17
언	어 학	1		0.17
인	류 학	1		0.17
지	리 학	1		0.17
계		596		100.01

문헌을 근거로 하여 구명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의도하에 작성된 것이 표 5, 6, 7이다.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타분야 정보전달매체는 도서와 잡지라는 것이다. 이 분야 연구자들은 따라서 여러 유형의 정보전달매체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행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도서와 잡지를 주종으로하여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 6.2.1 경제학 문헌

우리나라 경제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타분야 정보전달매체는 단연 도서와 잡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 순위는 도서, 잡지, 정부간행물 등으로 나타났다. 도서라고 하는 전통적인 매체에의 의존도는(57.61퍼센트) 여타 매체에의 의존도의 총합(42.39 퍼센트)를 능가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참조)

〈표 5〉 경제학 문헌에 유입된 타분야 정보 전달매체의 분포

매 체	수 량	%
도 서	53	57.61
잡 지	29	31.52
정 부 간 행 물	6	6.52
보 고 서	2	2.17
비 출 판 문 헌	2	2.17
계	92	99.99

〈표 6〉 사회학 문헌에 유입된 타분야 정보 전달매체의 분포

매 체	수 량	%
도 서	139	52.85
잡 지	81	30.80
보 고 서	24	9.13
정 부 간 행 물	9	3.42
회 의 자 료	7	2.66
학 위 논 문	2	0.76
기 념 논 문 집	1	0.38
계	263	100.00

〈표 7〉 정치학 문헌에 유입된 타분야 정보 전달매체의 분포

매 체	수 량	%
도 서	380	63.76
잡 지	145	24.33
보 고 서	36	6.04
정 부 간 행 물	14	2.35
신 문	7	1.17
회 의 자 료	6	1.01
학 위 논 문	4	0.67
비 출 판 문 헌	3	0.50
기 념 논 문 집	1	0.17
계	596	100.00

### 6.2.2 사회학 문헌

사회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타분야 정보전달매체는 도서와 잡지가 주종을 이룬다. 그 순위는 도서, 잡지, 보고서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학 문헌과 마찬가지로 도서라고 하는 전통적인 매체에의 의존도(52.85 퍼센트)는 여타 매체에의 의존도의 총합(47.15 퍼센트)를 능가하고 있다. 이 점과 함께 보고서, 정부간행물, 회의자료 등의 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 참조)

### 6.2.3 정치학 문헌

표 7에 의하면 정치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타분야 정보 전달매체는 도서와 잡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순위는 도서, 잡지, 보고서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학 및 사회학 문헌과 마찬가지로 도서라고 하는 전통적인 매체에의 의존도(63.76 퍼센트)는 여타 매체에의 의존도의 총합(36.24 퍼센트)을 능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경제학이나 사회학 문헌과 달리 신문이라는 매체를 선호하는 점도 특성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보고서, 정부간행물 등의 부상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3 국가별 분포

각 학문분야의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의 문헌은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었는가? 분산되었는가? 등을 구명하는 일은<sup>16)</sup>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문헌인용습관을 구명한다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문헌의 국가별 출판상황을 진단하는 일은 그것이 언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출판된 문헌은 대부분 그 국가의 공용어를 사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문헌은 곧

16) J. M. Brittain, *Internationality of the Social Sciences*. *JASIS* 35:1 (1984), 11

특정언어의 문헌을 가리킨다고 하여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것을 행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의도하에 작성된 것이 표 8이다.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과학에 유입된 타분야 문헌들은 우리나라 문헌이 위주이지만 외국문헌은 단연 영어문헌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3.1 경제학 문헌

경제학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의 문헌은 특히 한국과 미국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백분율의 총화는 한국과 미국 어느 국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8 참조)

문헌의 생산과 그 문헌에 사용된 언어는 일맥상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 연구자들은 타분야 문헌을 인용할 때 다른 어느 국가의 문헌 보다 한국어와 영어문헌을 선호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8 참조)

### 6.3.2 사회학 문헌

사회학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의 문헌은 경제학 문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생산된 문헌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의 백분율의 총화는 한국의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학 문헌은 타분야의 문헌일지라도 국내 문헌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8 참조)

사회학 연구자들은 경제학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타분야 문헌을 인용할 때 한국어와 영어 문헌을 선호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참조)

### 6.3.3 정치학 문헌

정치학 문헌에 인용된 타분야의 문헌은 경제학 및 사회학 문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생산된 문헌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표 8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언어의 분포 역시 한국어와 영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8〉 사회과학 문헌에 유입된 타분야 문헌의 국 가별분포

구 분	경 제 학		사 회 학		정 치 학	
	수 량	%	수 량	%	수 량	%
한 국	41	44.57	136	51.71	262	43.96
미 국	39	42.39	90	34.22	220	36.91
영 국	8	8.70	10	3.80	45	7.55
일 본	2	2.17	5	1.90	25	4.19
독 일	—	—	13	4.94	22	3.69
프 랑 스	—	—	1	0.38	8	1.34
중 국	—	—	4	1.52	6	1.01
기 타	2	2.17	4	1.52	8	1.34
계	92	100.00	263	99.99	596	99.99

#### 6.4 문헌인용습관

인용문헌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문헌인용습관을 구명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진단된 결과를 종합하고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도출해 보자. 도출된 유사점과 상이점이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문헌인용습관이 될 것이다.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용된 타분야 문헌의 주제분포와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및 국가별 분포라는 측면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6.4.1 유사점

###### 가. 주제의 분포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타분야 문헌의 주제는 대체로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및 철학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다같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문분야는 역사학이다.

사회학 분야와 정치학 분야는 상호의존 및 상호보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즉 사회학 분야는 정치학 분야에 24.33퍼센트의 의존도를 기록하고 정치학 분야는 사회학 분야에 34.9퍼센트의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는 역사학 이외에도 교육학 분야에 다같이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의존도는 각각 11.96퍼센트, 3.42퍼센트, 3.69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3, 4 참조)

#### 나.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사회과학 분야에 유입되는 타분야 정보의 전달매체는 도서와 잡지가 우세하며<sup>17)</sup> 특히 도서는 지배적인 매체임이 확인되었다. 정부간행물과 보고서는 도서와 잡지에 이어서 주목해야 할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정보전달매체의 순위는 도서, 잡지, 보고서, 정부간행물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6, 7 참조)

#### 다. 국가별 분포

표 8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타분야의 문헌을 인용할 때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생산된 문헌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sup>18)</sup>

### 6.4.2 상이점

#### 가. 주제의 분포

사회과학 각 학문분야별 타분야 의존도는 서로 크게 다르다. 표 1에 의하면 타분야 의존도는 경제학이 가장 낮고 사회학이 가장 높으며 정치학분야가 중간에 위치한다. 경제학은 역사학 분야에, 정치학은 사회학 분야에, 사회학은 경제학 분야에 각각 높은 타분야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학 연구자들의 타분야 의존도는 최대 25퍼센트, 최소 1.09퍼센트로서 그 격차는 23.91퍼센트이다. (표 2 참조)

17) Wm. Garvey, *Communication: The Essence of Science*. (Oxford: Pergamon Press, 1979), p. 270.

18) 전기한 브리텐의 연구에 의하면(1984), 미국의 경우 사회과학분야의 자급도(self-sufficiency)는 86.2퍼센트이다.

사회학 연구자들의 타분야 의존도는 최대 50.19 퍼센트, 최소 0.38 퍼센트로서 그 격차는 49.81 퍼센트이다. (표 3 참조)

정치학 연구자들의 타분야 의존도는 최대 34.9 퍼센트, 최소 0.17 퍼센트로서 그 격차는 34.73 퍼센트이다. (표 4 참조)

#### 나.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매체의 다양성의 정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도서와 잡지가 지배적인 정보전달매체인 점은 틀림없으나 각 분야 연구자들이 이 두가지 매체에 의존하는 정도는 매체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6, 7 참조)

도서와 잡지를 제외한 기타 매체에의 의존도는 학문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 다. 국가별 분포

표 8에 의하면 사회학과 정치학 연구자들은 경제학 연구자들에 비하여 여러 국가의 타분야 문헌을 선호하고 있다. 경제학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헌을 고르게 인용하는 양상이지만 사회학과 정치학 연구자들은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문헌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문헌이 타분야 문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학문 분야에 따라 그 의존도는 차이가 있다. 타분야 문헌중에서 우리나라 문헌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학 51.71 퍼센트, 정치학 43.96 퍼센트, 경제학 44.57 퍼센트이다.

## 7. 결 론

인용문헌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문헌인용습관을 구명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학,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를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학회지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에 인용된 타분야 문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타분야 문헌의 주제분포와 정보전달매체의 분포 및 국가별 분포의 구명을 이 연구의 중심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가.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타분야 문헌의 주제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접한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헌 까지도 폭넓게 유입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이 분야 연구자들은 각자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문헌을 창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 2, 3, 4 참조)

나. 경제학의 타분야 의존도는 6.3 퍼센트, 정치학의 그것은 14.36 퍼센트, 사회학의 그것은 19.66 퍼센트로 각각 측정되었다. (표 1 참조) 경제학은 역사학 분야에 25 퍼센트, 정치학은 사회학 분야에 34.9 퍼센트, 사회학은 경제학 분야에 50.19 퍼센트의 의존도를 각각 지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학은 역사학적 측면이, 사회학은 경제학적 측면이, 정치학은 사회학적 측면이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3, 4 참조)

다. 경제학 연구자들의 타분야 의존도를 높은 순위별로 제시하면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통계학 등이며 사회학의 그것은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심리학 등이고 정치학의 그것은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의 순위를 나타낸다. (표 2, 3, 4 참조)

라.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타분야 정보의 전달매체는 단연 도서와 잡지이다. 정부간행물과 보고서는 도서와 잡지에 이어서 주목해야 할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도서와 잡지를 제외한 기타 매체와의 의존도는 학문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마.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타분야 문헌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생산된 문헌이 압도적이며 지배적인 외국어는 역시 영어라고 생각된다.

바. 지금까지 기술된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문헌인용습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할 것이다. 첫째, 사회과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과학의 편협성을 지양하려고 한다. 둘째, 사회 과학 연구자들의 공식 학술코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주요 매체는 도서와 잡

지이다. 셋째, 외국문헌 특히 영어문헌이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주요정보원이 된 것은 그것의 세계적인 보급율과 영어권 국가들의 우수한 커뮤니케이션망 그리고 연구자들의 교육배경 때문일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의 문헌출판량과 그것의 유통구조이다.

사.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과학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